

투데이 칼럼

양보 스피치의 삶

인간의 생활은 아주 복잡 한 관계에서 살아가고 있다. 각자가 개성이 뚜렷하고 잘난 맛에 살아가는 시대이므로 자기 주장이 강하고 체면을 중시하므로 양보와 배려도 줄어드는 현상이다. 호감 받고 존경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덕목 중에 양보와 배려가 중요하다. 또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때 앞으로 나아갈 수도 물러설 수도 없는 애매한 상황일때도 현명한 양보가 최고다. 여기서 조선시대 광해군 때 가마고개 전설에 나오는 이야기를 소개한다. 시집가는 신부가 타고 있는 가마 행렬이 경남 하동의 한 고갯마루에 도착하였는데 고갯길은 가마 한 대가 겨우 지나 갈 수 있는 벼랑길이었다. 가마꾼들은 땀을 식히기 위해 좁은 벼랑길 앞에서 잠시 쉬기로 하고 가마를 내려놓고 있는데 고개 건너편에서 다른 가마가 도착하였다. 그 쪽 가마도 신부의 가마였다. 좁은 벼랑길을 사이에 두고 두 가마가 마주하게 되어 한 가마

가 지나가고 다른 가마가 지나 가야 하는 고갯길이었다. 쉬고 있던 가마꾼들이 소리쳤다. "이쪽은 남영 조식선생의 직계 후손집 가마요. 먼저 갈테니 잠시 비켜주세요!" 그러나, 상대 가마꾼들이 "이 쪽 가마는 퇴계 이황선생의 문하생 집 가마요. 그쪽이 먼저 비키시오!"라고 소리쳤다. 막다른 고갯길에서 두 집 가마꾼들이 가마를 두고 신경전이 벌어졌다. 신부를 태운 두 가마가 서로 양보할 수 없는 맞수각문을 만난 것이다. 두 가마가 서로 대치하고 있다는 소식을 양 집안 사람들과 문중 사람들이 모두 물러나와 싸움이 되었다.



김 양 옥 전주교대 평생교육원 전담교수

결국 가마꾼들 싸움이 가분과 혈통, 학자들의 체면싸움이 되었다. 그 후 두 가문의 어른들이 모여 합의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결론이 나지 않고 양쪽 신부들과 이야기를 나눈 양 가문의 대표들은 혼인을 위해 신랑집으로 가던 두 신부를 벼랑 아래 강물로 몸을 던지고 말았다. 그리고 가마꾼들은 빈 가마를 메고 왔던 길을 되돌아간 한심스런 이야기다. 이 사건이 있던 뒤 고개의 이름이 가마고개가 되었다는 이야기도 있다. 어느 한 쪽이 조금만 비켜주었더라면 아무 일 없이 비켜서 지나갈 수 있었는데 한 두 걸음 비켜주지 않아 새 인생을 출발하려던 두 신부가 강물에 몸을

던져야 하는 안타까운 사건이다. 우리는 생활하면서 가마고개와 같은 상황에 처 할 때가 있다. 애매한 상황일 때 꼭 필요한 것이 양보와 배려다. 내가 물러서면 지는 것 같지만 이기는 것이다. 물 다 죽는 것 보다 내가 겨우 는 것이 낫다는 것이다. 양보가 없으면 서로 관계가 깨지고 서로 다 죽을 수가 있다. 양보는 상대를 위해서가 아니라 결국 나를 위해 하는 것이다. 체면 때문에 양보를 하지 못한다면 결국은 내가 죽을 때 그 체면도 같이 죽는 것이다. 체면도 권위도 내가 살아야 사는 것이다. 우리 모두 양보할 줄 알고 배려할 줄 아는 현명한 판단을 잘 하자. 살기 위해서, 일등 하기 위해 죽는 것보다 이등을 하면서라도 양보의 삶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보자는 것이다. 살아있는 사람에게 미래가 있다고 일등 할 기회는 언제나 남아 있기 때문이다. 스피치를 통한 양보와 배려의 학습 잘해서 즐겁고 행복한 생활하자.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인도네시아 화산 폭발 부상자 옮기는 구조대



4일(현지시각)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섬에서 구조대원들이 화산 폭발 부상자들을 이송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구조당국은 므라피 화산 분화로 분화구 인근에서 등산객 등 1명이 숨진 채 발견했다고 전했다

영국서 반유대·이슬람 혐오 반대 촛불 집회 열려



3일(현지시각) 영국 런던의 관청 소재 지역인 화이트홀에서 반(反) 증오 촛불 집회가 열려 참가자들이 촛불을 밝히고 있다. '인류를 위한 사고 함께 만들기'라는 이번 행사는 반유대주의와 이슬람 혐오를 반대하며 영국 내 지역사회 보호를 촉구하기 위해 열렸다.

사설

전주권 소각장 신설 문제

전주권 소각장 신설 문제에 촉각이 곤두서고 있다. 해당 지역 주민들 간에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히기 때문이다. 현재 전주와 완주, 김제와 임실 지역은 생활쓰레기를 소각하는 전주권 광역소각장을 새로 지어야 한다. 소각장을 신설하는 만큼, 행정과 주민은 물론, 주민 간 갈등의 불씨였던 기존 현금성 지원 제도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전주권 광역 소각장의 새로운 입지로 공모에 응한 지역은 모두 3곳이다. 전주시는 입지선정위원회를 통해 연말까지 이 가운데 최종 입지를 정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전주시는 최적 후보지에 한해서 전라환경영향평가를 전북지방환경청에 협의 내용을 보내야 한다. 이런 가운데 전주시의회를 중심으로 쓰레기 소각장과 매립장 같은 폐기물 처리장 주변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현금성 지원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행 폐기물 처리시설 관련 법을 보면, 처리시설 반경 300m 이내 주민에게는 현금성 지원이 가능하게 돼 있다. 하지만 처리시설에서 나오는 분진 등이 3km 정도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연구 등을 통해 보고되고 있다. 그런 만큼, 특정 대상을 위한 현금 지원이 아닌 문화·복지 시설, 그리고 건강검진 등 주변 주민 모두에게 보상이 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소각장 글독으로부터 300m 안에 거주민이 없을 때는 현금성 주민 지원 기금을 지원하지 않아도 된다는 유권 해석이 가능하다. 직접이든 간접이든 간에 모두에게 보편적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주민 지원금을 둘러싼 민관 그리고 주민 간 갈등이 쓰레기 매립으로까지 이어지기 십상이다. 과거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개선을 위한 논의가 절실하다.

사회적기업 오네시모의 자원봉사

전북 도내에서 노인자원봉사 활동을 꾸준히 지원하는 사회적기업이 있다. 예비 사회적기업인 유한회사 오네시모는 사회에 꼭 필요한 방역 소독 및 문화예술 자원봉사를 지원하고 있다. 특히 대한노인회 전북노인자원봉사지원센터에서 특별히 활동하는 노인자원봉사단을 적극 돕고 있다. 최근에는 노인자원봉사단 및 관계자들을 위한 2024년 새해 탁상 달력을 무료 제작하여 대한노인회 전북연합회 노인자원봉사지원센터에 200부를 기증했다. 연합회 노인자원봉사지원센터 장은경 센터장은 "경기 불황으로 인한 기업 매출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선풍 달력을 제작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동시에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수립하고 운영하는 기업이다.

일반적인 영리 기업은 말 그대로 이윤 극대화를 추구한다. 반면에 사회적 기업은 반쯤은 영리를 추구하고 반쯤은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과 공동체적 가치 실현을 추구하는 기업이다. 그러나 영연히 돈을 버는 기업이므로 일반적인 공익단체와는 분명히 구분된다. 온전히 사회적 목적만을 추구한다면 사회적 기업보다는 비영리단체에 가깝다. 사회적 기업은 일자리사업이 그 뿌리다. 통상적으로 사회적 기업의 가장 초기형태는 자활 사업이다. 실제로 취약계층을 고용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가 가장 많다. 한편 오네시모 봉사단은 2021년 3월 대한노인회 전북연합회 소속의 노인자원봉사단으로 출발했다. 단원은 강성구 봉사단장(73) 등 남녀 모두 20명이다. 노인자원봉사는 사회의 따뜻한 밑거름이며, 건강하고 행복한 노인이 되는 비결이다. 특히 지역사회에 헌신하는 일이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어려움을 속 시원하게 풀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